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 2권 2호 (2014. 8) pp. 1~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2 Iss. 2 (Aug, 2014)

일부 성인 학습자의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관한 만족도 조사

김진수[1], 장희경
신성대학교 치위생과

Adult learners' satisfaction survey on trust training

Jin-Soo Kim[1], Hee-Kyung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sung University, Chungnam 343-861, Korea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ndustry's satisfaction with college educational courses and college students to change college members' cognition of employment, and to review the problems of college curriculums to provide guidelines which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seeking plans to develop through improvements in the image of college students.

Methods: For the purpose, the present researcher personally informed two hundred and eight (208) college students, who were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from June 3 to 14, 2013 and were in the course of commissioned education at College S located i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of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nd how to complete a questionnaire sheet, and obtained their prior consent, followed by collecting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heets. A total of 208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however excluding eight students' questionnaire sheets having poor responses such as duplicate entry, missing values or the like, two hundred (200) (96.2%)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population.

Results: 1. Regarding difficulty in courses at college, the score was 3.77 points in Grade 1 group and 3.25 points in Grade 2 group, indicating that Grade 1 students as freshpersons have severer difficulty in course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2. For courses to be more complementary, the score was 3.73 points in Grade 1 group and 3.42 points in Grade 2, suggesting that compared to Grade 2 students, Grade 1 students consider that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5$). 3. For courses to be more complementary, the score in '25

교신저자: 장희경
신성대학교 치위생과
(343-861)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
Tel: (041) 350-1491, Fax: (041) 350-1495, E-mail: alth3837@shinsung.ac.kr
투고일자: 2014. 4. 23. 심사일자: 2014. 5. 25. 게제확정일자: 2014. 7. 15.

years old or younger' age group was 3.87 points, which suggests that younger students think that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5). 4. In regard to the most expected things for professors, the score in '25 years old or younger' age group was 3.75 points, which indicates that younger students have higher expectation for professor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5).

Conclusions: The author conclud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address and present the practical modeling and framework of college education for companies in order to give shape to the improvement plans.

Key words : companies, continuing education, satisfaction

색 인 : 계속교육, 만족도, 산업체

1. 서 론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세계의 구조적 변화, 시회의 민주화에 따른 평등주의의 확산과 고학력화, 그리고, 인구의 변화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 시키고 특히 성인들의 교육적 요구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학이 학문의 고도로서의 폐쇄성을 허물고 현대 정보산업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계속교육을 대학의 본질적 기능으로 수용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회봉사적 기능만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현상이며 임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

현대 대학 교육은 대체로 실무 중심의 현장 적응 교육으로 가는 산업 지향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산학 협동을 통한 학생 및 교수의 교류나 현장 실습의 기회를 부여해 왔고, 이를 학점화 하였으나 실질적인 산학 협동에는 다소 미진한 문제도 없지 않았다.

또한 산업체의 신기술개발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종업원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 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신기술과 학문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해 왔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2].

1990년대 이후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교육이 순수학문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목적 이외에 학문의 실용성을 제고하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략이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이 곧 국제 경쟁력이 된 상황에서 교육계는 물론 산업계도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교육기관만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와 유기적인 노력인 산학협력에 의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3].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학과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만족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는 기업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더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전문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는 산업체가 고졸사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원을 선발하여 인근 전문대학에 의뢰하고, 전문

대학은 위탁받은 근로자를 해당 학과에 정원 외로 입학시켜 전문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다음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명실상부한 산학협동교육의 한 형태이다[5].

산업체 위탁교육의 목적은 산업체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제공과 기술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제도 졸업자로서 산업체에 18개월 이상 근무 중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산업체의 장과 전문대학장의 계약에 의해서 정원 외로 입학시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시킨 다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6].

산업체 위탁교육을 특히 실업계 고교졸업자의 계속교육기회 제공과 기술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문대학의 산학협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문대학장과 해당 산업체장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된다. 종전에는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실업계 고교졸업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 전형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특정 산업체에 취업중인 근로자를 직종의 특성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없고, 산업체의 사원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로 이어지지 않으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의 기술수요를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다. 따라서 현장 직업기술 지향적인 전문대학이 산업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7].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기존연구로는 Stadt과 Gooth[8]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정, 계획, 지도, 감독 하에 대학에서의 강의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에 관한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하는 직업교육의 한 프로그램이다”고 정의한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의 교육 실천가인 화이트헤드로 연구에서 “기술교육을 무시한 존재할 수 없고, 인문교육 없는 기술교육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두 가지 교육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9]. 나[10]는 산업계가 학계가 상호발전과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및 제반 가용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교육, 훈련, 연구, 지원 등의 형태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력관계라고 정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reenwood[11]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낭비를 막고, 생산력을 증가시키며, 고등교육을 통해 삶의 기준을 높여 생활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하[12]는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학협력이 강화됨으로서 일반 학생들에게도 산업체 현장실습의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발전,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사회에는 봉사하는 대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전문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하고 회수 하였다. 총 208명의 학생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이중기입, 결측치 등이 있는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00명(96.2%)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도구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최[13]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학년, 성별, 연령),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5문항(직장 내 다른 동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직장에서 직무에 더 충실하려고, 승진, 보직, 직무만족 등 자기발전을 위하여, 학력보완을 위해서, 졸업 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하려고),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5문항(공부하는 습관화가 안 됨, 강의내용을 못 따라감,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 야간에 개인 사생활 없어 불편, 직장 업무과다로 등교 곤란),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분야 5문항(어학, 전문능력, 인성교육, 근로정신, 컴퓨터), 더 보완해야 할 과목 분야 4문항(교양과목, 전공과목, 영어, 일어 등 어학분야 과목, 컴퓨터분야 과목),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 5문항(강의를 더 충실히 해 달라, 직장의 직무에 적합한 수업을 해 달라,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 좀 더 호의적 관계가 필요하다, 시험, 과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히 해 달라), 총 27문항으로 하부영역별로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α 로 측정하였으며 .821이었다.

2.3. 통계분석 및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 분야, 더 보완해야 할 과목분야,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학년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고,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유의한 변수에 대한 사후검정은 Duncan test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유의수준은 제1종 오류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보다 2학년이 59.2%로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73.0%로 훨씬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40세 이상 42.1%로 가장 많았고 26~30세 10.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Subdivision	No	%
	Total	200	100.0
Grade	One grade	96	48.0
	Two grade	104	52.0
Gender	Female	44	22.0
	Male	156	78.0
Age	Under the age of 25	40	20.0
	26 ~ 30 years	28	14.0
	31 ~ 35 years	40	20.0
	36 ~ 40 years	30	15.0
	At least 40 years of age	62	31.0

3.2. 연구대상자의 교육만족도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승진, 보직, 직무만족 등 자기발전을 위하여' 가 4.08점으로 진학하게 된 동기가 가장 높았고, '졸업 후 대학 또는 대학에 편입하려고'가 2.95점으로 진학하게 된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에서는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고통'이 3.74점으로 수업 중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강의내용을 못 따라감'이 3.11점으로 수업 중 어려웠던 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은 '전문능력'이 4.11점으로 가장 필요한 과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정신'이 3.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는 '전문과목'이 3,67점으로 보완해야 할 과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양과목'이 3.42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가 3.84점으로 교수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내용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의를 더 충실히 해 달라'가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Subdivision	Mean	Standard deviation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To other colleagues in the workplace to keep abreast	3.21	1.21
	Try to stick to the job at work	3.60	1.03
	For the development of self-promotion, appointment, job satisfaction	4.08	0.95
	Education to complement	3.93	1.01
	Try to transfer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or graduate school	2.95	1.26
	Total	3.56	0.76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Studying habituation	3.52	1.10
	Not follow the lectures sense	3.11	1.07
	Double life of suffering at work and school	3.74	1.08
	Night on personal privacy do not inconvenience	3.61	1.15
	Workplace tasks difficult to attend a plethora	3.32	1.18
	Total	3.46	0.854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Language study	3.65	0.99
	Professionals	4.11	0.86
	Tenacity	3.91	0.90
	Working spirit	3.74	0.95
	Computer	3.90	0.98
	Total	3.86	0.70

Variables	Subdivision	Mean	Standard deviation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Liberal arts	3.42	1.08
	Majors	3.67	1.06
	Subject areas of language, such as english, japanese	3.43	1.11
	The field of computer courses	3.67	1.05
	Total	3.54	0.82
Professors want most hoping	More faithful to the teaching vary	3.05	1.16
	Different classes adequate to duties of a job	3.32	1.16
	Please understand the difficulty worker	3.84	1.15
	A more favorable relationship is needed	3.55	1.05
	On tests, assignments, assessments objectively and fairly to different	3.21	1.10
	Total	3.39	0.89

(N=152)

3.3. 학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교육만족도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에서 1학년 3.77점, 2학년 3.25점으로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치아를 보였다($p<.001$).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1학년 3.73점, 2학년 3.42점으로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이 있다고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3>.

<Table 3>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subjects in grades

Variables	Grade	No	Mean	Standard deviation	t	p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One Grade	62	3.53	0.73	.351	.726
	Two Grade	90	3.57	0.79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One Grade	62	3.77	0.65	3.839	.000***
	Two Grade	90	3.25	0.91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One Grade	62	3.99	0.66	1.824	.070
	Two Grade	90	3.78	0.72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One Grade	62	3.73	0.72	2.294	.023*
	Two Grade	90	3.42	0.86		
Professors want most hoping	One Grade	62	3.41	0.78	.134	.894
	Two Grade	90	3.39	0.97		

*p<0.05, ***p<0.001 by independent t-test

3.4.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교육만족도

'직장인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동기',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 '직장생활과 사회발전 추세로 보아 가장 필요한 과목', '더 보완해야 할 과목',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의 내용에서 여자와 남자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The mean difference in gender studies

Variables	Gender	No	Mean	Standard deviation	t	p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Female	41	3.60	0.75	.439	.662
	Male	111	3.54	0.77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Female	41	3.33	0.71	1.152	.251
	Male	111	3.51	0.90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Female	41	3.76	0.66	1.146	.254
	Male	111	3.90	0.71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Female	41	3.52	0.56	.238	.812
	Male	111	3.55	0.90		
Professors want most hoping	Female	41	3.43	0.74	.289	.773
	Male	111	3.38	0.94		

*p<0.05 by independent t-test

3.5.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교육만족도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25세 이하' 3.87점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더 보완해야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에서 '25세 이하' 3.75점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교수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5>.

<Table 5> The average age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Variables	Age	No	Mean	Standard deviation	F	p
Workers as the motivation to go to college	25 and less	29	3.78	0.93	2.148	.078
	26 ~ 30	16	3.61	0.55		
	31 ~ 35	21	3.35	0.45		
	36 ~ 40	22	3.23	0.84		
	More than 40	64	3.62	0.75		

Variables	Age	No	Mean	Standard deviation	F	p
From attending classes difficult thing	25 and less	29	3.78	1.16	2.054	.090
	26 ~ 30	16	3.70	0.58		
	31 ~ 35	21	3.29	0.70		
	36 ~ 40	22	3.26	0.89		
	More than 40	64	3.38	0.75		
Work life and social development trend seen most required courses	25 and less	29	4.08	0.86	1.540	.194
	26 ~ 30	16	3.99	0.58		
	31 ~ 35	21	3.62	0.78		
	36 ~ 40	22	3.78	0.59		
	More than 40	64	3.84	0.63		
Courses need to be more complementary	25 and less	29	3.87c	0.94	3.724	.006*
	26 ~ 30	16	3.78bc	0.80		
	31 ~ 35	21	3.32ab	0.90		
	36 ~ 40	22	3.10a	0.79		
	More than 40	64	3.56abc	0.68		
Professors want most hoping	25 and less	29	3.75b	0.96	3.306	.013*
	26 ~ 30	16	3.51ab	1.01		
	31 ~ 35	21	3.04a	0.76		
	36 ~ 40	22	3.02a	1.00		
	More than 40	64	3.45ab	0.76		

*p<0.05 by one-way ANOVA, Duncan test

4. 고안

산업체는 국제환경, 경제환경, 기술환경, 사회환경 등의 와중에 격동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기법에 필요한 기초적 관리행동이 출현되기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6]. 산업체 위탁생들이 학교교육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조직에 만족하여 생산성 및 성과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을 분석한 결과, 서[14]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으며,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포괄적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직장문제가 73.3%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가정생활이 11.1%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산업체 위탁교육 교육 만족도 중에서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은 '전공과목'을 분석한 결과, 홍[4]의 연구에서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업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전공코스를 학교가 개발하여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현장적응력이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16.76%가 답하였다.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는 싶은 것은 '직장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를 분석한 결과, 최[13]의 연구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애로를 이해해 달라가 66%, 직장의 직무에 적합한 수업을 해달라가 14%,

좀 더 호의적 관계가 필요하다 10%로 보고하였다.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은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2]의 연구에서는 1학년을 거의 마친 현재의 심정을 만족도로 나타낸 응답 결과를 보면 만족한다 37%, 보통이다 33%, 조금 부족하다 17%, 매우 만족한다 9%, 불만족하다 4%의 순으로 보고하였고, 최[13]의 연구에서 다양성이 많을 것으로 보아 3개까지 응답토록 한바, 가장 애로는 직장과 학교의 2중 생활 고통을 27%가 지적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보였고, 다음은 야간에 개인 사생활 없어 불편이 19%, 강의내용을 못 따라감이 17%로 나타나 장기간 수학에서 벗어난 생활에서 나오는 개인 사생활의 제약이나 강의 수준에 못 미치는 한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이 있다고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2]의 연구에서는 현행 교과 과정상 1학년을 이수한 시점에서 더 보완해야 할 교과목 또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3개까지 응답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분야 과목 20%, 영어·일어 등 어학 분야 과목 19%, 전공 분야 과목 16%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25세 이하' 나이가 적을수록 더 보완해야 과목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결과, 최[2]의 연구에서 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분야이며, 특히 고 연령층으로 컴퓨터 20%, 어학 19%, 전공 분야 과목 16% 더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은 산업체에서 오랜 경력기간 중 실무적 필요성의 강도를 인정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연령층이 높으므로 이해력이 높고 응용과 조합 능력이 높아 기능 또는 암기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전체적 시각이 높아져 감을 볼 때 초기의 일시적 애로로, 대체로 1학기 중간고사를 지낸 후 많이 완화되고, 1학기 마친 후 학점 취득표를 받게 된 때로부터 매우 진정되고 자신감과 자기 수학 계획을 차분하게 수립함을 면담을 통해 인지하였다.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에서 '25세 이하' 나이가 적을수록 교수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이 가장 높다는 것을 분석한 결과, 최[2]의 연구에서 직장인 애로 이해 80%, 직장 직무 적합 수업 14%가로 절대 다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직장애로를 이해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은 직장 직무압박이 매우 거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 산업체 위탁 교육의 정착화 방안은 법규적,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산업현장 근무자의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한정 실시하는 운용적인 학사행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교육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가 개제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지역이 한정된 점이다.

위탁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산업체가 전문대학의 교육 및 재학생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학 구성원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전화시키며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전문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충남에 위치한 S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

지에 응답하고 회수 하였다. 총 208명의 학생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이중기입, 결측치 등이 있는 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00명(96.2%)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재학 중 수업에서 어려웠던 점에서 1학년 3.77점, 2학년 3.25점으로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2.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1학년 3.73점, 2학년 3.42점으로 2학년보다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더 보완해야 할 과목이 있다고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 더 보완해야 할 과목에서 '25세 이하' 3.87점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더 보완해야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4. 교수님들에게 가장 바라고 싶은 것에서 '25세 이하' 3.75점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교수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급자인 대학과 교수, 수요자인 산업체와 위탁생 등 통합적으로 접근한 산학협동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질적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인 산업체 위탁교육의 틀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경복. 한국 대학의 성인 계속 교육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2. 최승욱. 대학 교육 전문가의 충전 및 방향 분석 제공. 한국능률협회. 1997;5(6):65-96.
3. 임창욱, 최은영. 산업체 만족도 제고를 통한 인턴십 활성화 방안.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007;6:131-150.
4. 홍영호, 박진홍. 전문대학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 산업 협력 학회지 2011;12(9):3967-3974.
5. 교육부. 93 교육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서울: 교육부; 1994:92-93.
6. 정봉원. 산업체 위탁생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관한 연구. 영진전문대학 관광계열 산업체 위탁생 중심으로. 영진전문대학 논문집. 1995;178-198.
7. 권건일. 한국 사회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5.
8. Stadt RW, Gooth BG. Cooperative education vocational occupational career, Indianapolis: Bonns-Merroll educational publishing;1980;31-32.
9.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Vocational technical terminology;1981:154.
10. 나정기. 산학실습에 대한 실태조사. 고등교육기관의 관광관련학과 실습생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999;2(2).
11. Greenwood KB. Contemporary challeng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ngton, virginia: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ation, Inc. 1981.
12. 하영습.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실증연구.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97.
13. 최승욱. 산업체 위탁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1999;6(3):317-352.
14. 서광수. 산업체 위탁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1997;19(2):103-129.